



시민의 힘으로 독서운동의 새 물결 만든다

문학평론가 도정일 교수(62·경희대)는 요즘 독서운동 프로 듀서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낸다. 북스타트 운동, 기적의 도서관 짓기 사업 등 그의 아이디어와 의욕이 독서운동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중이다. 도 교수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독서운동의 축으로 삼고 있는 2001년 출발한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하 책읽는사회). 그것으로도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도 대표는 그간 '생각하는 사회, 깨어있는 사회, 성찰하는 인간'이라는 '책읽는사회'의 모토 아래 모든 시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에 접근할 기회의 사회적 평등'을 확장하고 책읽는 문화를 가진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우리나라 성인 중 한 해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무려 28퍼센트라고 한다. 국민 10명 중 3명이 책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시장논리에 의해 삶의 가치

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공공의 가치, 인문학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소위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경제부문에서의 시장경제화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장논리가 사회전반의 가치를 장악하게 되고 다른 가치들은 추락하게 된 거죠.”

도 대표는 인문학의 위기가 단지 인문학 종사자들의 직업적 안위를 위협하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회전체가 인문학의 위축으로 생기는 사회적 경비 증가, 인간성 파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문학적 가치가 파괴된다면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문학자들이 느껴야 하는 위기인 것이다. “교수들이 아무리 인문학 위기를 외쳐도 사회적 인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하게 된 것이 책읽는 문화였습니다.” 8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작된 ‘책읽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저변에 깔고 출범한 것이다. 책이야말로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책읽는사회’는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독서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이고, 둘째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운동이다. ‘충분한 공공도서관을 짓고 충분한 독서 콘텐츠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가 주된 정책 캠페인의 하나이다. 도 대표에 따르면 서울에 문화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공공도서관에 관한 한 서울이 가장 최악의 도시이다. 인구 30만 명에 공공도서관은 겨우 하나뿐이라는 것. 참고로 경기도는 22만 명에 하나이다.

“도서관 구입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하버드 대학의 연간 도서관 구입 예산이 275억 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국 400여 개 공공도서관 전체의 도서 콘텐츠 예산이 50억 원이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하버드대학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를 50억 원에서 10년 이내에 2천억 원으로 늘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정부도 이 두 가지 정책제안에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조심스런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책제안 이후 도서 구입 비용이 50억 원 늘어난 것.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이 되었다고 한다. 도 대표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언젠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정책이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도 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모 방송국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금 우리의 어린이도서관은 정작 어린이를 위한 공간기능을 상실했다. 적합한 어린이 독서운영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어린이에 적합한 공간구조나 가구가 없다. 그저 장식일 뿐이다.

“시민 단체가 시민이 만들어준 자금을 가지고 만들자면 공공도서관 같은 큰 규모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규모로 서울에 두 도서관만 시험모델로 지어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방송국과 제휴를 하면서 바람에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조달하는 금액이 연간 60억 원 정도입니다. 어린이도서관 10개 정도 짓고 나면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을 테니까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이를 보고 지어달라는 거죠.”

이 운동이 시작되고 나자 약 7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밝혀 왔다. ‘책읽는사회’는 이에 필요한 기본설계와 가구, 콘텐츠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대표는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시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이다.

무엇보다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통해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바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다. “특히 지역주민들, 젊은 엄마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체험으로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낀 소비자입니다. 실제로 책을 읽은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도서관이 너무 멀기도 하고 가보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 이 기적의 도서관 운동이 나오니까 반가웠던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일 때 함께 책 읽어주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이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길이기도 하고 상상력과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어릴 때 만들어지지 않은 독서습관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만들어지고 그것이 발전하는 거죠.”

쉽없는 독서운동 가운데 도 대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근시안적인 일부 출판사들의 태도였다. 도서관건립운동이 도서관매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했던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왔던 것이다. “저희는 출판산업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읽는 문화가 성숙해야 출판사업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짓는다는 것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독서인구를 어릴 때부터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엽적인 관점에서 ‘어린이도서관 지으면 우리 책 안 팔리는 것 아니

냐'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것이 출판의 사명이라는 것을 끊임 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출판산업도 발전합니다.”

도 대표는 문학평론인 본업마저 제쳐놓고 독서운동을 해오는 동안 건강도 나빠지고 정작 자신의 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오래 전부터 신화론에 관해 쓰기로 약속한 원고가 있는데 못 쓰고 있어요. 시민운동에 시간 다 뺏기고 내가 써야 할 것은 미뤄놓는 통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해요. 어쨌든 시간이 나는 대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을 읽고 있다는 도 대표. 그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라크 전쟁 타인지 이슬람에 관한 책들이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검토해 본 결과, 문화역사적인 객관적이고도 총체적인 접근에 있어서 아쉽다는 평을 했다. 또 하나 신화론과 관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서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유행적인 주제로 쉽게 쓰여진 책은 절대 읽지 마라'는 것이다. “책은 정신의 행복과 열락을 경험하게 하는 산물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서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어진 책보다는 읽었을 때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도전이 있는 책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근육의 힘이 붙어서 산에 더 잘 올라가듯이 정신의 근육에 힘이 붙는다면 더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책들을 골라내는 능력은 자기 자신이 키워야죠. 제가 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에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 대표의 말처럼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부의 독서운동 시책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신념 또한 절실하다. 그래서 '책을 읽자'는 공허한 외침보다 이런 작지만 큰 독서운동이 더 소중한 것이다. **★**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어린이에게 책을!

bookstart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책을 읽는다? 책은 반드시 글자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북스타트(bookstart)운동'은 영아 독서운동이다. 생후 7~8개월 된 아이에게 책을 읽히자는 것이다. 영국의 버밍엄 지역 3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프로젝트는 교육적 효과가 알려지면서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65만 명 이상의 아기가 혜택을 입었다. 현재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1일 중랑구보건소에서 출범식과 함께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일보 노승숙 사장,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도정일 대표,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화경 중랑구보건소장을 비롯 출판문화계 인사가 대거 참석하였다. 앞으로 시범지구인 중랑구보건소를 통해 생후 6개월 안팎의 모든 아기들에게 장난감책과 그림책이 담긴 가방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운동은 '부모의 소득 격차에서 발생하는 궁핍과 박탈의 경험이 아기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고 기회의 편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할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고도정일 대표는 밝혔다.

